

한국농어촌공사 영주·봉화지사, 영농기 맞아 농업인 무더위 예방용품 전달

기사입력 2026-08-11 19:10 수정 2026-08-11 19:26

[인쇄](#)



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(지사장 조정옥)는 8월 11일 영주봉화지사 지사장실에서 (사)한국여성농업인영주시연합회에 작업모와 냉감타월 약 100만원 상당의 무더위 예방용품을 전달했다.

이번 기부는 영농철 무더위에 노출되는 지역 농업인들의 건강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,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. 전달된 물품은 농업인들이 야외 농작업 시 햇볕과 더위에 대응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.

조정옥 영주봉화지사장은 "농업인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이어가는 데 이번 물품이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"며 "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살피어 현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"고 말했다.

권대현 (youngju@newsn.com)